

북스

Books

先人에게 듣는 천태만상 세상 이야기

부족해도 넉넉하다

안대희 지음



“아이! 풍파가 거세게 몰아 쳤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사물이 이처럼 잃은 것이 없구나! 세상 풍파와는 정말 다르구나! 세상 풍파와는 환해(宦海, 벼슬의 바다)에서 일어난다. 저 환해는 실제 바다는 아니므로 풍파도 진짜가 아니다. 풍파가 일지 않지 않지 일어난다면 곳곳의 벼슬자리는 난리 나고 요동친다. (중략) 너무도 심하지 않은가? 이런 일은 실제 풍파는 일으키지 못하는 반면, 가짜 풍파는 잘 일으킨다. 대체 어떻게 가짜가 진짜보다 더한 말인가?”

조선 중기 광해군 시절 시인 임숙영(1576~1623)이 쓴 글이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높은 파도가 치는 동해 바다의 웅장한 자연 현상을 보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집어낸다. 자신의 능력을 잘 포장하는 사람들이 흥행하는 세상에서 상처 받고 동해처럼 마음을 달래는 옛 선비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고전 산문에 대한 평설을 통해 개성 있는 문체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펼쳐왔던 성공시대 한문학과 안대희 교수가 이번에는 인생을 주제로 한 고전 산문 50편을 소개한 '부족해도 넉넉하다'를 펴냈다. 이인로·김낙행·이규보 등 잘 알려진 학자의 글부터 일반 백성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다룬 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해 우리말로 옮기고 평을 달았다.

사람 사는 세상, 선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수록한 책의 내용들은 한 편 한 편이 우리 사는 모습과 판박이다.

아버지와 아들, 부부 등 가족의 이야기에서부터,



풍파가 이는 자연의 진짜 바다를 보며, 문득 인간 세상의 가짜 바다 환해야말로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림 속 풍파만큼이나 사유의 출렁임도 크다. 그림은 심심장의 '선유도'.

자랐거라, 도시의 모습, 유희와 교제에 얽힌 사건과 생각들, 뇌물이 횡행하고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며 벼슬을 얻기 위해 다루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인간 세계에 있게 마련인 기쁨과 슬픔, 시기와 질투 등 다양한 욕망에 이르기까지 책 한 권에 세상살이 천태만상을 다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이 궁 밖을 나서면, 옆치고 체면이고 접어두고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신임 도지사가 부임하자 새 도지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열람하려는 이웃 고을 아전들이 벌이는 해프닝은 세상스럽지 않다.

견망중으로 고민하는 젊은 선비와 머리를 제발 빗고 단정하게 다니라고 타박을 듣는 덕벼머리 총각, 객지에서 다른 여자와 자기 양았다고 생색내는 남편 등 가슴성 이야기도 보인다.

또 사람의 태도를 보고 풀벌레의 행태 92가지를 '속태'(俗態)' '악태'(惡態) '주태'(醜態)로 나눠 기록

한 글은 절로 웃음이 난다. “사람을 만나 볼수록 ‘오래도록 명성을 들어왔습니까’라고 말한다”든지 “청탁 편지에 ‘오직 당신만을 믿는다’고 쓴다”든지 하는 일은 밑바닥이 들여다보이는 속된 행태다. “잡자는 사람을 흔들며 깨운다”는 일의 악태이다. 추태는 “뭇구멍을 후벼 판다” “이 사이에 긴 띠를 끌어낸다” “손으로 발가락을 문지르고 뽀샤시하게 만든다” 등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보는 눈은 통하는 모양이다.

이처럼 인생과 세상에 대한 참찰에 담긴 비판적 사유들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준다. 휴가철 모든 상념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권할만한 책이다. 하지만 옛글이 던지는 문제의식만은 만만치 않다.

(김영사·12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마르틴 치머만의 세계사-인간이 알아야 할 세계 역사의 모든 것=역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마르틴 치머만교수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쓴 역사 교양서. 인류의 시작부터 정보화 사회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세계 역사를 해석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료와 입체적인 구성으로 세계 역사 발전의 큰 맥락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살림·2만5천원>



▲정치를 사랑하다-클린턴 부부의 아직 끝나지 않은 도전=미국 대통령 자리에 2번이나 있었던 빌 클린턴과 지금은 남편보다 더 유명한 여성 리더십으로 자리 잡은 현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정치에 대한 열정으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낸 클린턴 부부의 결혼 생활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떼어 놓으면 진면목을 파악할 수 없는 클린턴 부부의 역할관계를 최초로 조망했다. <에버리치출판사·2만8천원>



▲실크로드, 길 위의 역사와 사람들=지금까지 실크로드의 역사·문화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영종씨가 쓴 책은 서양의 동양에 대한 역사적 우위를 입증하는 문화전파론적 시각에서만 일찍이던 주류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실크로드의 흥성과 역사적 전개, 고대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에서 실크로드가 미친 영향을 두루 살폈다. <사계절·1만6천500원>



▲나와 마릴린=영화 '모던보이'의 원작소설을 쓴 이지민씨의 세 번째 장편소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2월 당대의 실존심벌 마릴린 먼로는 주한미군 위문 공연차 실제로 서울을 찾았다. 통역을 맡았던 가상의 인물 엘리스가 먼로와 함께 한 3박4일길을 그렸다. <그책·1만원>



▲루이 14세는 없다=루이 14세를 집중 연구 해온 이영림교수가 루이 14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의 증언을 통해 루이 14세와 그 시대의 실체를 파헤쳤다. 루이 14세와 그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인간 군상, 그들의 복잡한 권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17세기 프랑스사를 넘어 우리 역사와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푸른역사·2만원>

테이크아웃클래식

피테 등 2차분 출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한 인물을 중심으로 삶과 사상, 대표작을 빨리 훑어볼 수 있게 한 생각의나무 '테이크아웃클래식시리즈' 2차 분 3권이 나왔다.

6권은 정영적인 '세계문화'의 제작자 피테, 7권은 오페라의 연금술사 주세페 베르디, 8권은 독일 오페라와 악극의 창시자 바그너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책은 테이크아웃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생애와 작품은 물론 연보, 깊이 읽기, 더 읽어볼 책들을 덧붙여 한 인물을 마스터 할 수 있게 했다.

3차분 카프카, 프루스트, 입센, 마르크스 편 등 5권도 곧 나올 예정이다. <생각의나무·각권 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

광장

프랑코 만쿠조 외 지음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이 새 단장돼 개방되면서 광장의 의미와 이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장의 역사와 미래에 관한 의미 있는 책이 번역돼 나와 눈길을 끈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도시건축학자 프랑코 만쿠조가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대학 등 유럽 5개국 연구기관 연구원들과 함께 쓴 '광장'은 광장의 '원산지'이자 '보고장'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의 광장의 역사와 현재의 기능을 살펴 보면서 광장이란 어떤 곳인지 윤곽을 그려주는 책이다.

광장은 시민의 정체성 부여하는 장소

이탈리아 프랑코 만쿠조 교수를 비롯한 저자들은 “유럽에서 광장은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장소”라고 설명한다. 화합, 교환, 상호 인식의 장소인 광장이라는 열린 공간이 유럽 정체성의 근원을 이룬다는 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광장은 소통의 장소이기도 하다. 개인의 사회화와 대면을 위한 장소이자 기억이 집합되며 활동이 교차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저자들은 광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역할은 ‘장터’로서의 기능이다. 장터로서의 광장은 흥정과 타협이라는 사회적 훈련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뮌스터 광장, 프랑스 블루즈의 카피톨 광장 등은 여전히 장터로 활용되고 있다. 광장은 또 공연이나 전시가 활발히 이뤄지는 문화

중심지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의 장이라는 게 그 특징이다. 스위스 로카르노의 그랜드 광장에서 영화축제, 이탈리아 사수올로의 장미광장에선 문학축제가 열린다.

저자들은 “광장의 주인은 사람”이라면서 광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책은 또 영국 버밍엄의 빅토리아 광장, 프랑스 파리의 방돔 광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전 광장 등 24개국 60여 곳의 역사와 현재 모습을 담은 700여 장의 사진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 재개발을 통해 집단거주지에 광장과 같은 시민 소통을 위한 공공시설을 고민하는 현 시점에서 이 책은 벤치마킹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의나무·4만7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공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 후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세/원룸, 아파트/빌라, 주택/재개발, 공방/토지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 후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수완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타운 빌딩
“금”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